

연구논문

사회적 거리분석: 선거자료와 결혼선호도자료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ocial Distance using Election and Marriage Preference Data

이 명 진**

Myoung-Jin Lee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 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주요용어: 지역주의, 선거, 투표, 지역간 거리, 내각중심제

Much effort has been made to measure regional difference showing the pattern of regionalism in Korea. Focusing the concept of social distance, this paper examines various election and regional preference data. The paper presents three major findings. First, current election data show clear regional cleavage. Second, region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s often found in one's everyday life. Third, political aspect of regionalism is strongly related to social aspect of regional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ionalism in Korea will survive for the time being. The regionalism is rooted in everyday life. To political elites, it became an attractive and economic way to maintain their power. This tendency will promote the preference for parliamentary system among political elites and the possibility of appearance of regional party

* 이 연구는 2001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 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논평자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교수(E-mail: mjlee@kookmin.ac.kr)

I. 머리말

낙선운동, 선거법 개정, 후보자정보공개 등 선거운동 방식이나 선거풍토의 변화 등 한국선거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경향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더욱 지역주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 65개 선거구중에서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며, 호남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후보이거나 '당선후 민주당입당'을 공언한 친여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이렇게 여러 선거에서 보이는 선거결과의 지역적 편중성을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부각시키고 있다(중앙일보, 2000; 조선일보, 2000).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자꾸 지역갈등의 문제점을 접하곤 한다. 특정한 지역출신들의 인사와 관련된 연고주의, 특정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지역주의와 관련된 일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이진숙, 1959; 김혜숙, 1988; 유영을 외, 1999).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데에는 다른 연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는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내에서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지역간의 객관적인 차이 혹은 차별을 살펴보는 것들로 대체로 지역주의의 문제를 자원배분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행위 혹은 결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Hueglin, 1986; 안병영, 1988). 지역주의적 투표행위, 엘리트 층원문제, 경제격차, 사회이동, 직업차별 등이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의 대표적인 주제들이다(Kim and Koh, 1980, 이갑윤, 1990; 김만홍, 1987; Shin and Chin, 1989; 김용학, 1990; 문석남, 1989; 차종천, 1990, Yu, 1990, 조기숙, 1992).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첫 번째 유형의 연구와 달리 지역주의의 문제를 '편

견의 고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안병영, 1988). 즉 지역주의를 출신지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과 연결시키면서 지역주의를 집단의식화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결혼형태, 지역간 거리, 지역감정 등이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이 다루는 대표적인 주제들이다(이진숙, 1959, 김진국, 1988; 민경환, 1988; 김용학·김진혁, 1990, 나간채, 1990; 이재열, 1991; 고흥화, 1993, 이명진, 1997).

그런데 이들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지역주의의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이 항상 객관적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Hueglin, 1986). 객관적인 지역간의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같은 특정한 매개체가 필요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반대로 객관적인 지역차이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의는 두 가지 측면사이의 일종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송복, 1997).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연구들은 지역주의를 보는 다른 배타적인 시각과 접근방법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연구주제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지역주의를 일종의 사회적 거리라고 보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¹⁾ 구체적으로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선거나 투표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차별과 관련한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채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투표연구와 선거연구에서와는 달리 출신지를 지역구분에 중요한 결

1) 여기서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은 보가더스(Bogardus scale)과는 다른 것으로 집단간 특정의견이나 현상에서의 의견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Macdonald, 1972).

정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지역주의’가 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과 관련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선행연구에서 거주지만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한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급격한 인구유입을 통해 성장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의 경향을 적절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역출신이 모여 살기 때문에 격심한 지역주의의 경향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비슷하다면 일종의 균형상태가 이루어져 의견상으로는 지역주의 경향이 적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그렇다면 거주지 이동과정을 겪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지역주의의 차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주의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신동아, 1988;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6).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각종 공식선거자료와 한국정치학회 선거연구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97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조사>와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1996년에 실시한 <소비자의식조사>를 사용한다. <대통령선거조사>는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각종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학분야에서 수행한 조사와는 달리 결혼, 동업 등 지역주의의 사회학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로, 표집방법은 다단계 확률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집된 응답자 수는 1,207명에 이르고 있다(이남영, 1998). <소비자의식조사>는 전국의 15세이상 6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지역별 무작위 층화표집(proportional probability sampling)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종 표본 규모는 8,145명이다. 자료에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매체접촉 실태, 정치·사회의식, 가치관, 광고관련 태도, 소비자 의식/행동,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II. 지역주의와 선거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도별 득표결과를 분석하기로

〈표 1〉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역별 투표현황

거주지	집중도	유효 후보자수	이회창 (%)	김대중 (%)	이인제 (%)	권영길 (%)	허경영 (%)	김한식 (%)	신정일 (%)
서울	0.39	2.60	40.89	44.88	12.77	1.12	0.09	0.15	0.09
인천	0.33	2.99	36.40	38.56	23.03	1.54	0.15	0.18	0.16
경기	0.34	2.97	35.54	39.28	23.63	1.05	0.16	0.18	0.16
강원	0.34	2.95	43.19	23.76	30.95	0.99	0.39	0.22	0.5
대전	0.35	2.89	29.18	45.03	24.07	1.24	0.15	0.2	0.14
충북	0.32	3.11	30.79	37.43	29.41	1.3	0.35	0.29	0.43
충남	0.36	2.80	23.52	48.25	26.15	0.96	0.3	0.41	0.41
광주	0.95	1.06	1.71	97.29	0.67	0.19	0.02	0.09	0.04
전북	0.85	1.17	4.55	92.28	2.14	0.36	0.08	0.43	0.17
전남	0.90	1.12	3.21	94.59	1.41	0.17	0.08	0.37	0.17
대구	0.56	1.78	72.65	12.53	13.07	1.22	0.12	0.09	0.31
경북	0.45	2.22	61.92	13.67	21.76	1.45	0.27	0.16	0.76
부산	0.40	2.52	53.34	15.29	29.78	1.22	0.11	0.11	0.16
울산	0.36	2.76	51.36	15.42	26.7	6.14	0.12	0.08	0.19
경남	0.41	2.41	55.15	11.05	31.3	1.69	0.2	0.13	0.49
제주	0.34	2.94	36.59	40.58	20.47	1.41	0.2	0.29	0.46
합계	0.35	2.86	38.75	40.27	19.21	1.19	0.15	0.19	0.24

주: 1) 집중도는 해당지역에서 무작위로 두 사람을 뽑았을 때, 두 사람이 동일한 후보자에 투표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CI = \sum p_i^2$) (참조: Taylor and Jodice, 1983).

2) 유효후보자수가 1이면 모든 사람이 단일후보에 투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2이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3이면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투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

한다. <표 1>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율을 백분율로 환산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지역구분은 기본적인 행정조직인 도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광역시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포함시켰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각 지역간의 거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대응분석은 한마디로 분할표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한 두 개의 축(axis) 상에 표현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거분석, 마케팅, 의학 등 응용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Lebart et al., 1984; Benzécri, 1992; 이명진, 1997).

대응분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응분석은 기술적인(descriptive)통계기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계학 기법을 크게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으로 나눈다면, 대응분석은 전자에 속하는 기법이다. 이 분석기법의 원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기술적인 통계기법과 매우 유사하다.²⁾ 예를 들면, 두 종류의 변인군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과 비슷하며, 관계를 지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과 유사하다. 그밖에 유사한 기법으로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이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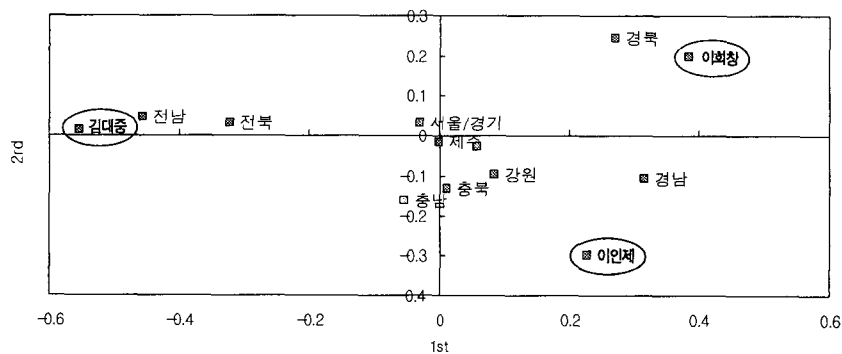
둘째, 다른 기술적인 기법들과는 달리 대응분석은 주로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과학에서 산출되는 대부분의 자료가 범주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

2) 대응분석은 기술적이고 탐색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통계적인 전제조건이 추론적 방법만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응분석에서는 자료의 분포에 관해서 특별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이 엄밀한 가설검증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3) 유사한 다른 통계기법과 대응분석의 비교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Greenacre, 1984; Benzécri, 1992)

해 볼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물론, 분할표분석이나 대수선형분석같은 범주변수를 다루는 다른 분석기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들에 비해 대응분석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할표 분석에서는 행과 열 범주 사이에 관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주간의 관계는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대수선형모형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모형으로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수선형 모형들은 표본의 크기에 많이 좌우된다. 너무 작은 표본에서는 측정치의 신뢰도(reliability)가 문제가 있고, 너무 큰 표본에서는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에 문제가 있다. 그 밖의 문제로는 측정치의 해석이 힘들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Fox, 1984; Clogg and Eliason, 1987; Kim and Lee, 2000).

〈그림 1〉은 이러한 자료를 대응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지역별 벡터값을 좌표로 삼아 2차원 그래프에 표시한 것이다(Geenacre and Underhill, 1981; Hand, 1981; Greenacre and Blasius, 1994; 이명진, 1997). 방송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김대중후보는 국토의 서쪽에서 주로 득표를 이회창후보와 이인제후보는 국토의 동쪽에서 많은 득표를 하였다. 이러한 동서의 축은 다른 아닌 호남과 영남을 나누는 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차이의 대부분(93.8%)을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7%가량을 설명하고 있는 축은 이회창/김대중후보와 이인제후보를 구별해 주는 것



〈그림 1〉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간 거리(거주지)

이다. 이 축에서 지역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영남 즉 경북과 경남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식적인 선거자료에서 표현되는 지역의 개념은 거주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간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거주지를 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이 지역주의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지역을 거주지로 다루는 것은 출신지와 관련된 지역주의의 경향을 포착할 수 없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에 대한 두 번째 분석은 선거연구회 조사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2〉는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실시한 조사자료에서 나온 자료를 출신지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비 수도권 출신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출신지와 거주지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림 2〉는 이 표를 대응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호남과 영남으로 대표되는 지역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 이와 아울러, 그 정도는 약하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은 각 지역 출신별로 자기 출신 거주자들과 유사한 투표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영호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유권자의 투표경향은, 사실 각 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주의적 투표가 서로 상쇄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둘째, 이와 동시에 수도권 이주라는 경험은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적 편중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수도권 이주라는 조건은 타 지역사람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고, 같은 지역 사람들과 유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a〉 거주지별 15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행백분율)

거주지 \ 후보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기타	사례수
서울/경기	35.8%	43.1	16.9	4.2	492
강원	41.7	33.3	22.2	2.8	36
충청	22.3	48.2	24.1	5.4	112
전라	2.1	95.0	2.1	0.7	140
경상	59.9	11.7	22.0	6.4	309
합계	37.1	41.0	17.4	4.5	1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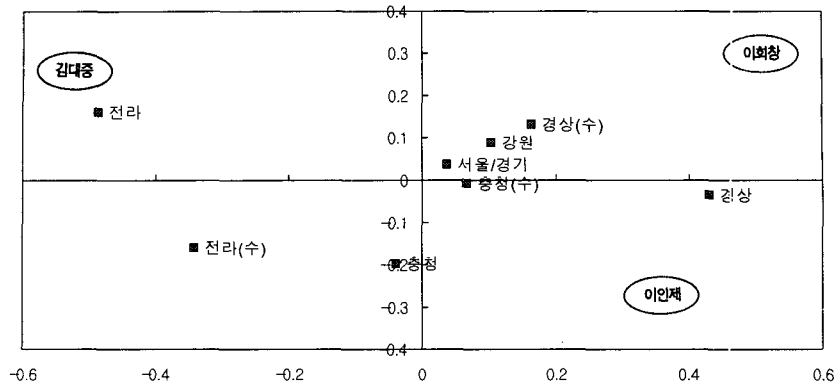
〈표 2b〉 출신지별 15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행백분율)

지역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기타	사례수
서울/경기	39.0%	39.0	17.1	4.8	228
강원	49.3	26.9	14.9	8.9	67
충청	34.1	39.7	22.9	4.3	179
전라	1.9	86.4	10.5	5.2	258
경상	59.8	12.1	21.7	6.2	323
합계	36.1	41.7	17.7	4.5	1055

〈표 2c〉 수도권지역의 출신지별 15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행백분율)

지역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기타	사례수
서울/경기	39.2%	39.2	17.0	4.7	212
강원	55.6	22.2	11.1	11.7	30
충청	44.6	33.8	20.3	1.4	74
전라	0.0	80.0	18.1	1.9	110
경상	60.7	17.9	14.3	7.1	56
합계	176	212	83	21	492

출처: 선거연구회(1997).



〈그림 2〉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출신지역간 거리

Ⅲ. 지역주의와 편견

일상생활에서 지역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은 지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앞에서는 투표라는 일회적인 정치행위를 통해 나타난 정치부문에서의 지역주의라면,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부문에서의 지역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지역주의의 형태 중에서 개인들에게 가장 의미가 큰 결혼선호도와 지역주의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 말하자면 지역적 편견을 통하여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표 3a〉는 각 출신별 결혼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세로는 평가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가로는 평가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표는 원래의 자료를 표준화한 자료이다. 즉, 자기 지방 출신자들에 대한 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을 100으로 놓고 어떻게 다른 지방을 평가하는가를 측정한 자료이다. 이렇게 표준화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별 점수와 사례수의 차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다(Bishop et al., 1975).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라도 출신자들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방이 자기지역을 100% 찬성

한다고 했을 때 절반이하 가량이 찬성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른 지방의 평가와는 상이하게 전라도 출신자들이 가장 편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대감이 심할 것으로 믿어지는 있는 경상도 출신자들에게 대해서도 52.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경상도 출신자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지역편견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전라도 출신자들에 대하여 41.4%정도만이 찬성하고 있다.

〈표 3b〉는 각 출신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와 각 출신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득이라는 항목은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와 자기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 출신자의 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양부호는 일종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음부호는 특정 지역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을 나타낸다. 전라도 출신자들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낮게 하는 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남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에 비해, 남들은 전라도 출신자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타 지역 출신자들은 평가하는 정도도 높고, 자신들의

〈표 3a〉 지역별 결혼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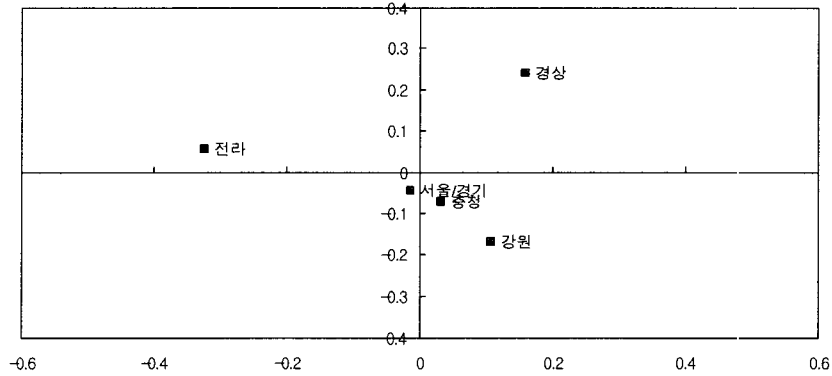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서울	100.00	86.61	72.46	75.23	73.13	69.46	41.72
경기	88.56	100.00	72.88	72.78	67.74	65.31	38.04
강원	75.20	73.03	100.00	70.34	58.21	60.54	33.74
충청	68.18	71.19	74.58	100.00	61.08	60.85	34.97
전라	47.90	40.73	38.56	39.91	100.00	41.42	21.47
경상	55.27	57.25	61.02	54.89	52.01	100.00	31.90
제주	55.15	56.33	55.93	53.06	56.14	58.81	100.00
사례수	883	545	236	654	871	1323	163

주: 1) 가로로 배열된 범주들은 평가대상이고 세로로 배열된 범주들이 평가주체이다. 각 칸에 제시된 점수는 자기출신지에 대한 결혼선호도를 100으로 했을 때 각각의 지역에 대한 평가점수이다.
 2) 사례수는 기준이 되는 응답자의 수로, 이들은 같은 출신자를 결혼상대자로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표 3b〉 결혼선호도 (요약지표)

	(a)	(b)	(a/b)	(b/a)	(a-b)
서울	69.77	65.04	1.07	0.93	4.72
경기	67.55	64.19	1.05	0.95	3.36
강원	61.84	62.57	0.99	1.01	-0.73
충청	61.81	61.03	1.01	0.99	0.77
전라	38.33	61.39	0.62	1.60	-23.05
경상	52.06	59.40	0.88	1.14	-7.34
제주	55.90	33.64	1.66	0.60	22.26

주: 1) a= 〈표 3a〉의 각행별 평균값 (대각선값 제외).
 2) b= 〈표 3a〉의 각열별 평균값 (대각선값 제외).



〈그림 3〉 결혼선호도에서 나타난 출신지역간 거리

남들에 대한 평가보다, 남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표준화된 표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응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벡터를 도표로 만든 것이다.

한편, 〈표 4a〉와 〈표 4b〉는 지역주의에 관한 사람들의 평가를 요약한 표이다. 첫 번째 표는 지역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얼마나 찬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60%가 넘는 응답자가 지역간의 편견이나 차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출신지역이 취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60%정도가 찬성하고 있으며, “집권자의 출신지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65%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다.

〈표 4a〉 지역주의에 관한 의견(행백분율)

의견 문항	매우반대	반대	보통이다	찬성	매우찬성	사례수
가	3.5%	11.9	24.7	52.4	7.4	8144
나	1.8	10.4	27.4	50.6	9.9	8143
다	1.2	5.9	19.8	53.9	19.1	8142
라	1.4	7.5	27.3	49.1	14.7	8142

- 가.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은 출신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 나. 출신지역이 취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 다. 어느 출신지역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발전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 라. 누가 집권하게 되면 집권자의 출신지역 사람이 대거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표 4b〉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은 출신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주장에 대한 출신지별 의견(행백분율)

의견 출신지	매우반대	반대	보통이다	찬성	매우찬성	사례수
서울	4.1%	11.3	23.9	54.2	6.5	1410
경기	3.8	12.5	25.2	48.7	9.8	982
강원	3.6	10.3	24.2	53.4	8.5	388
충청	2.6	10.9	21.8	55.7	9.0	1173
전라	4.6	15.0	28.4	44.3	7.7	1512
경상	3.0	10.6	24.4	55.8	6.2	2379
제주	2.8	13.8	21.6	56.0	5.7	282
전체	3.5	11.9	24.7	52.4	7.5	8126

출처: 코리아리써치(1996).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은 출신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개인의 인성과 관련된 질문에도 약 60% 정도가 찬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적 편견이 뿌리깊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출신지별로 살펴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IV. 정치제도의 변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차이가 출현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호남지역에서는 김대중으로 대표되었고, 영남지

〈표 5〉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역별 집중도

	13대(1987)	14대(1992)	15대(1997)
서울	0.288	0.312	0.385
인천	0.299	0.292	0.334
경기	0.305	0.293	0.337
강원	0.431	0.317	0.339
충북	0.330	0.280	0.322
대전	---	0.273	0.346
충남	0.313	0.286	0.357
전북	0.717	0.799	0.854
광주	0.894	0.919	0.947
전남	0.822	0.852	0.896
대구	0.560	0.413	0.581
경북	0.521	0.460	0.450
부산	0.426	0.562	0.397
울산	---	---	0.363
경남	0.435	0.548	0.415
제주	0.356	0.302	0.341
전체	0.293	0.321	0.34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7).

역에서는 강도는 약간 틀렸지만 박정희로 대표되었다. 물론 이후로 전개 되는 지역주의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정책과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최초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김대중에 대한 선거와 투표에서 호남지역의 동일시 경향은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각 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당의 출현이라는 정치적인 현실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정당은 여전처럼 국회에서 ‘안정석’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지역당

〈표 6〉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지역별 집중도

	12대(1985)	13대(1988)	14대(1992)	15대(1996)	16대(2000)
서울	0.310	0.231	0.297	0.291	0.419
인천	0.328	0.291	0.263	0.275	0.358
경기	0.261	0.247	0.285	0.245	0.339
강원	0.299	0.294	0.287	0.253	0.304
충북	0.381	0.335	0.314	0.284	0.289
대전	---	---	0.244	0.328	0.268
충남	0.263	0.337	0.286	0.361	0.316
전북	0.323	0.476	0.411	0.475	0.506
광주	---	0.795	0.601	0.753	0.558
전남	0.253	0.518	0.451	0.544	0.518
대구	0.235	0.370	0.324	0.306	0.431
경북	0.282	0.352	0.335	0.296	0.336
부산	0.285	0.409	0.350	0.381	0.415
울산	---	---	---	---	0.275
경남	0.287	0.328	0.312	0.332	0.358
제주	0.335	0.284	0.368	0.317	0.443
전체	0.253	0.242	0.278	0.240	0.30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7).

의 색채를 더해가고 있다. 주요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주의에 더욱 기대는 한, 지역적인 한계 피해보려는 각 정당의 노력은 실패에 돌아갈 확률이 크다.

〈표 5〉와 〈표 6〉은 지역적 차별과 편견이 선거제도와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 유효투표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명이하의 후보자에게 표가 집중적으로 몰린 지역이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경향이 뚜렷한 각 정당별 지역주의는 앞으로의 정치현실의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지역적 근거가 형성되면, 유권자나 정치엘리트들은 이를 계속 이어가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공고화하려는 정치엘리트들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역주의의 양상을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을 비교하였다. 전자는 투표행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 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편견을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차이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전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와의 대비가 가장 극명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물론 정치적인 지역갈등의 양상이 일상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역갈등이 특정 정치인을 통해 표출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등 그 순서와 인과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측면--흔히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정서--만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주의의 문제는

좀 더 깊은 사회적인 편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집권 경험, 제도의 변경이나 정당간의 합당을 통해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약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상당히 표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성급하고 단순한 논의이다. 설사 그러한 것이 표면적인 연합, 합당 등으로 약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가 깊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치엘리트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정치적인 단결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체험한 각 지역간의 이해는 이러한 경향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강화시키는 내각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적인 정치지도자의 부재는 더욱 이러한 경향과 지역당의 출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흥화. 1993.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권태환. 1980. “도시화와 인구.”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서울: 민음사.
- 김만흠. 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김문조. 1990. “한국의 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153-66. 서울: 성원사.
- 김용학. 1990.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265-302. 서울: 성원사.
- 김용학·김진혁. 1990.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 결혼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4집 (여름호): 65-86.

- 김익기. 1990. “지역감정 해소방안: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385-402 서울: 성원사.
- 김진국. 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221-49. 서울: 성원사.
- 김형국. 1990.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형태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pp. 207-32. 서울: 나남.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123-70. 서울: 성원사.
- 나간채. 1990.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79-100. 서울: 성원사.
- 동아일보. 2000. 4. 19.
- 문석남. 1990. “지역격차의 역사적 배경: 해방으로부터 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34-44. 서울: 성원사.
- 민경환. 1988. “집단간 갈등- 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91-121. 서울: 성원사.
- 박경산. 1994. “한국선거연구의 방법론적 재조명.” 김웅진 편. 방법, 방법론과 한국정치학. pp. 139-156.
- 박찬욱. 1992.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포.”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pp. 67-115. 서울: 나남.
- 송복. 1988.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경문사.
- 서명숙. 1999. “지역감정을 사법 처리한다?” 시사저널 제484호.
- 석현호. 1992. “불평등과 형평연구의 설계.”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49-70. 서울: 나남.
- 선거연구회.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관계 자료. 미간행 출판물.
- 신동아. 1988. 1월호.
- 신명순. 1993. 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 신석호. 1999. “99년 검찰파동의 시작과 끝.” 신동아 3월호.

- 안병영. 1988. “풀어야 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 *신동아* 1월: 294-302.
- 유영을 외. 1999. “한국사회의 권력이동.” *신동아* 2월호: 144-203.
- 이갑윤. 1990. “투표형태와 민주화.”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167-82. 서울: 나남.
- 이남영. 1998. 《한국의 선거Ⅱ: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이진숙. 1959. “8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 이갑윤. 1990. “투표형태와 민주화.”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pp. 167-82. 서울: 나남.
- 이명진. 1997. “지역주의와 정권: 지역별 집중도와 거리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 이재열. 1996. “연결망 분석: 지역감정과 정체성 연구의 한 방법.” 제주도 지역사회연구 워크샵.
- 임현진. 1999. “지역갈등은 망국병.” *한국일보*. 2월 19일.
- 전광희. 1990. “한국사회의 인구이동과 지역갈등의 구조.”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 조기숙. 1992. “합리적 유권자 모델과 한국의 선거분석: 여촌야도, 지역주의, 정당본위 투표를 중심으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pp. 401-434. 서울: 나남.
- _____. 1996. 《합리적 선택》. 서울: 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 선거총람》.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일보. 2000. 4. 18.
- 코리아리서치. 1996. 《소비자의식조사》.
- 차종천. 1989. “지역주의적 선거와 유권자: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에 대한 로짓 분석.”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143-160.
- _____. 1990.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차이.”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193-212. 서울: 성원사.
- Bishop, Yvonne M. Stephen E. Fienberg, and Paul W. Holland. 1975. *Discrete*

- Multivariate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MA: MIT Press.
- Greenacre, Michael and Leslie G. Underhill, 1981. "Scaling a Data Matrix in a Low-Dimensional Euclidean Space." Douglas M. Hawkins, eds. *Topics in a Applied Multivariate Analysis*, 183-26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d, D. J. 1981. *Discrimination and Classifi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Hueglin, Thomas O. 1986. "Regionalism in Western Europe: Conceptual Problems of a New Politic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439-57.
- Kim, Jae-On and B. C. Koh, 1980. "The Dynamics of Electoral Politics: Social Develop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anipulation of Electoral Laws." C. L. Kim, ed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59-84. L.A.: ABC-Cleo.
- Jae-On Kim and Myoung-Jin Lee. 1988. "Dynamics of Regional Conflict, Partisan Identification, and the Prospect of a Parliamentary System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 _____. 2000. "Tabular Analysis." pp. 3107-3128 in *Encyclopedia of Sociology*, edited by B. F. Borgatta, New York: Macmillan.
- Lipset, Seymour M. 1981. *Political Man*. 2nd E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cdonald, K. I. 1972. "MDSCAL and Distances between Socio-Economic Groups." Keith Hope, eds. *The Analysis of Social Mobility: Methods and Approaches*, 213-234. Oxford: Clarendon Press.
- Schiffman, S. S., M. L. Reynolds, and F.W. Young. 1981. *Introduction to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Shin, Eui Hang and Seung Kwon Chin. 1989. "Social Affinity Among Top

Managerial Executives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Sociological Forum*: 3-26.

Taylor, Charles L., and David A. Jodice. 1983. *The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 III: 1948-1977*. Ann Arbor: The Interuniversity Consos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Tenenhaus, Michel and Forrest W. Young. 1985. “An Analysis and Synthesis of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ptimal Scaling, Dual Scaling, Homogeneity Analysis, and Other Methods for Quantityzing Categorical Multivariate Data.” *Psychometrika*. Vol. 50. No. 1: 91-119.

Weil, Frederick D. 1982. “Tolerance of Free Speech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1970-79: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Survey Data.” *Social Forces* 60: 973-992

_____. 1985. “The Variable Effects of Education on Liberal Attitudes: A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of Anti-Semitism Using Public Opinion Survey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458-474.

Yu, Eui-Young. 1990. “Regionalism in the South Korean Job Market: An Analysis of Regional-Origin Inequality among Migrants in Seoul,” *Pacific Affair* 63: 24-38.